

제7강, 20세기 건축의 흐름과 New Brutalism

(1교시)

◆ 2차대전 이후의 20세기말까지의 흐름

※ 학습목표

2차대전 이후의 20세기말까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한다.

▲ 2차대전 이후의 20세기말까지의 흐름

① 2차대전 이후 ~ 1960년: 전환기

- 20세기 후반부, 2차대전을 기점으로 모더니즘이 막을 내린 것으로 얘기를 함.
- 2차대전 이후에 현대건축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를 전환기라고 부름.
- New Brutalism운동, 유럽의 실존주의 예술이 일어남.
- 2차대전의 충격을 뒤뜰린 형태와 암울하고 분열적 이미지로 나타남.
(자코메티의 작품)
- 모더니즘 수정, 계승, 반대 재해석된 모습이 건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남.
- 장식화, 쇠퇴화, 재점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됨.

② 1960년~ 1970년: 주관주의

- 60년대 오게 되면 다양하게 폭발적으로 운동들이 전개가 됨.
- 경우에 따라서 이즘의 성격들이 나타나게 됨.
- 대중들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이 나타나게 됨.
- 환경에 대한 고민들, 자연과 건축 환경, 지역성에 대한 고민,
역사적 연속성의 고민이 나타나고 다뤄짐.

③ 1970년~ 1980년: 합리주의

- 대중주의는 60년대 나타나 이후 뜸해지고 뉴욕을 중심으로 합리주의와 네오모더니즘이 나타남.
- 반 모더니즘, 자유정신과 탈 권위적, 레이트 모더니즘, 구조주의건축, 구조미학,
미니멀리즘이 나타남.
- 합리주의인 동시에 모더니즘의 수정된 계승 성격을 가짐.

④ 1980년~ 1990년: 신주관주의

- 80년대 오게 되면 60년대 나타난 주관주의 운동들이 한 번 더 분화되고 극단적으로 가는 특징을 볼 수 있음.
- 포스트모더니즘과 복합문화공간의 상대주의 공간과 대형공간으로 헤도니즘, 구조미학의 운동들이 나타남.
- 80년대 구조주의에 신주관주의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 하이테크 건축.
- 형태주의가 80년대 오게 되면 좁은 의미의 신 주관주의로 나타나는데 해체, 신표현주의,
네오바로크, 모던바로크 형태로 나옴.
- 생태건축, 원시주의, Environmental 운동, 역사적 연속성
- 네오 네셔널리즘, 네오 클래식시즘, 통틀어 히스토리시즘으로 발전.

- 네오 모더니즘은 80년대 주춤했다가 90년대 오면서 신추상의 개념과 새로운 단계로
옴.
- 네오 데스틸, 네오 뉴욕5, 네오 코르뷔지안, 등등 모더니즘을 각색하는 형태가 폭발적
으로 등장.
- 앞 시대에 대한 반성 내지는 재해석과 수정, 시도를 하나,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는 데
는 실패한 것으로 봄. 후기자본주의적 고민을 담은 양식운동, 자본이 후기단계 축적되
는 양식이 건축에 반영됨.
- 전통적인 것에 대체되는 것이 자본으로 나타나게 됨.

제7강, 20세기 건축의 흐름과 New Brutalism

(2교시)

◆ 전환기의 New Brutalism

※ 학습목표

전환기의 New Brutalism을 건축적 흐름과 함께 파악한다.

▲ 모더니즘의 계승과 수정

- ① 구조, 생산성- 구조주의
- ② 생산, 구조미학- 하이테크
- ③ 형식미학 - 네오 모더니즘, 레이트 모더니즘.
- ④ 공간- 뉴욕5, 미니멀리즘
- ⑤ 복합성- 공간: 상대주의 공간
- ⑥ 주관성-형태: 신주관주의
- ⑦ 대중성: 대중주의, 포스트모더니즘, hybrid
- ⑧ 역사, 도시: 역사주의, 신허리주의
- ⑨ 환경과 지역성: rationalism, 생태주의, 원시주의

▲ 전환기의 New Brutalism

- ① 1950년대 모더니즘의 재해석 (후기, 연속, 혼합)
- ② 모더니즘의 혼합 경향
- ③ 1950년대 일반적 특징
 - 반 Georgian : 영국 내에서 일정 부분 모더니즘 계승.
 - 반 Modernism: Team x, CIAM 등 단체 등의 교조화 된 모더니즘

▲ New Brutalism의 비정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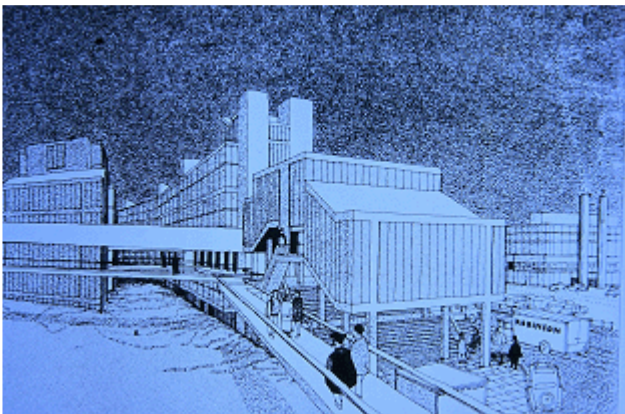
- ① 1953년 Parallel of life and art 전시회
 - 미래주택이나 golden lane housing complex 공간의 자유분화, 자유형태가 나타남.
 - 이전의 모더니즘이 생산성 개념에 따라서 개별화된 재조합된다.
- ② Hollistic Composition
 - 반복과 규범에 의한 획일적인 것에 대한 반기
 - 생산성 경향을 버리고자 함.
- ③ 코르뷔제의 후기 영향

▲ New Brutalism의 일상성의 가치, 지중해주의

- ① 실존주의- 일상성의 가치
- ② 모더니즘의 거대담론
 - 개인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묻게 됨.
 - 이에 대한 반발로 일상성의 가치가 대두 됨. (허무와 실존주의의 양면성)
 - 어떤 일상인가에 대한 물음과 고민이 이어짐.
- ③ 후기 자본주의: 소비
 - 레디메이드, 인디펜던트 그룹 등.



- ④ 대량 생산 뒤에 오는 소비에 대한 고민
 - “This is tomorrow” 전시
 - 미래주택과 도구주택
- ⑤ 신재료
 - Fibrass plaster
 - ‘생활 속의 자잘한 즐거움들’ 스케치 (스미스 부부)



- ⑥ 미국의 후기 자본주의
- ⑦ 지중해 문명의 토속성과 원형
- ⑧ 60년대 이후 소비사회에 맞는 지역, 자연, 원시에 대한 고민.

제7강, 20세기 건축의 흐름과 New Brutalism

(3교시)

◆ New Brutalism과 60년대 전환기

※ 학습목표

New Brutalism의 기능한 점과 60년대 전환기 건축을 이해한다.

▲ New Brutalism 과 거리미학

① 일상성 개념의 연장

- 길거리의 일상화
- 거리의 물리적 요소가 갖는 비정형성
(사진작가 Henderson: 동 런던 뒷골목의 리얼리즘)

② 건축 어휘: Street deck

- 광장(군집) + 가로 (이동)
- 복합 공간 내에 이동, 군집을 포함
- 건축을 도시 구성 속으로 (전통 도시의 구조를 모델로)
모더니즘의 바둑판을 탈피하고자 함.

③ 맥락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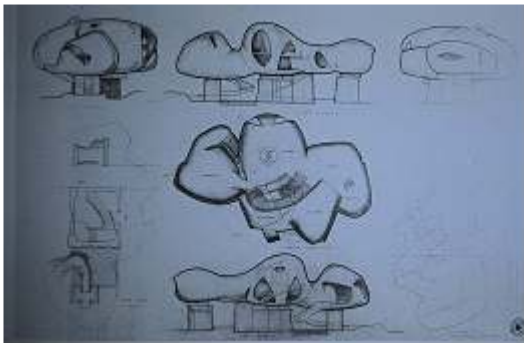
- 건물이 도시와 화학적 결합

▲ 60년대 전환기

① 형태

- 콘크리트 가소성, 표현주의, 거친 표현, 유기 곡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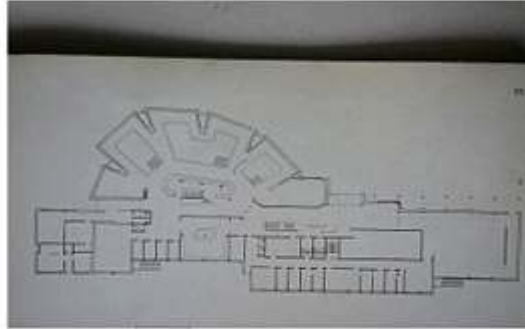
② Scharoun, Kiesler와 같은 모더니즘 표현주의 건축가



③ Aalt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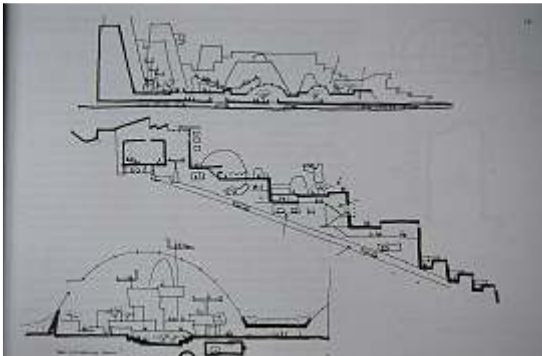
- 모더니즘과 탈 모더니즘의 중간 지점에 위치
- 핀란드의 지역성과 모더니즘의 국제성을 결합

- (공예다움- 자연재료, 유기구성과 기능성- 평면, 곡선과 매스분절- 형태)
- 지역주의적인 면



④ R. Erskine

- 구조 축적성을 대량생산으로 표현
- 장식억제: 건축 고유의 축조성으로 장식적인 표현을 함.
- 조적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, 노출 콘크리트로 미니멀리즘 표현



⑤ Eames 부부

- 미스의 철골 가구식 구조와 테스틸의 점, 선, 면 구성을 결합
(모더니즘 내에서 자생적 교배)

⑥ Fuller

- 대량생산을 자잘하게 조화: 조형미와 하이테크에 영향



⑦ Venturi

- 일상 소비 공간을 미적 소재나 영감, 채색을 이용한 건물의 가로 서비스
- 소비문화를 새롭게 제공하고 조합함.



⑧ Archigram

- 후기 자본주의 문화를 인스턴트로 정의함. (인스턴트 건축)
- 기계 유토피아, 디스토피아 사이에서 고민을 함.
- 신표현주의적 염세주의



⑨ Eero Saarinen

- 구조미학을 유기 형태와 연결

⑩ P. Rudolph

- 공간의 상호 관입, 복합 공간 -> 사각형 박스 자르기

